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로의 초대/ 사회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통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같이

*사죄를 위한 침묵의 기도/ 다같이

*참회의 기도/ 다같이

*용서의 찬양/ 다같이

보라 어린양 예수 세상죄 모두 지셨네 보라 어린양 예수 나의 죄 모두 지셨네 나는 알았고 고백하리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는 주의 어린양 나의 죄 모두 지셨네

*사죄의 선언과 감사의 권면/ 사회자

*감사의 찬양 및 봉헌/ 다같이

||:오 주님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해:||

예배 중 기도/ 말은이

기도송 / 다같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찬송/ 539장(통 483)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다같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3:1-7, 베드로전서 1:23 / 말은이

설교 및 기도/ 설교자 (2면 참고)

*찬송/ 546장(통 399)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다같이

*축도/ 담임목사

광고와 교제/ 다같이

*표는 일어서기입니다.

변창욱 목사 설교 포인트

“밤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5)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23)

1. 본문 배경

- 1) 니고데모는 유대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지니고 있었는가? (요 3:1-2)
- 2) 니고데모는 ‘낮에’ 오지 않고, 왜 ‘밤에’ 예수께 왔는가? (요 3:2, 19:38)
- 3)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 밝은 ‘대낮에’ 빌라도에게 나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요 19:38-42)

2. 본문 관찰

- 1) 예수께 대한 니고데모의 ‘랍비’ 호칭은 무엇을 뜻하는가? (요 3:2)
- 2) “두 번 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질문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요 3:4)
- 3)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에서 “거듭나지”의 다른 해석은 무엇인가? (참조: 요 3:3 난외주)
- 4)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에서 ‘물’과 ‘성령’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요 3:5)
- 5)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자(요 3:9-13)
- 6)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① 3:1-15, ② 7:50-52, ③ 19:38-40) 등장한다. 각 장에서 그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3. 적용과 묵상

- 1) 당신은 거듭남의 경험,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 2) 오늘 본문은 영적 중생(거듭남)에 대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 3) 회심의 시각과 장소를 집요하게 캐묻는 구원파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4) 인간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재 넘은 일이라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5)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되어 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사람은 자신의 회심 시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회심의 때가 아니라, 회심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심지어 그 시각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출처: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p.187.

Av 17, 5782

아브 월

- 1일: 주전 1237년 대제사장 아론이 죽다.
- 7일: 주전 586년 느브갓네살의 군대가 제1성전에 침입하다. 주후 67년 로마군에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내란이 일어난다.
- 9일: 주전 586년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다. 슬픔의 3주가 끝나다.
- 10일: 주후 70년 성전 화재가 진압되다. 위로의 7주가 시작되다.
- 15일: 투 브 아브. 포도 수확을 시작하는 날. 속죄일까지 55일 동안 기쁜 포도 수확의 절기.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지교회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24-2 산도로 255-8 우편번호) 10357 031-905-8291, 031-906-7754 공식계좌: 국민은행 166101-04-184638 (예금주) 모든지교회 Modenee Presbyterian (Tong-Hap) Church of Korea WebSite: modenee.kr E-Mail: modenee@me.com 담임목사: 이성계

정기모임

주일예배 1부 일요일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10시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시
예레브 사발 금요일 오후 7시

2022년 토라의 절기
(해당일 일몰에 시작)

히브리력 5782년
엘룰 시작 8월 27일(토)

히브리력 5783년
티슈리 시작 9월 25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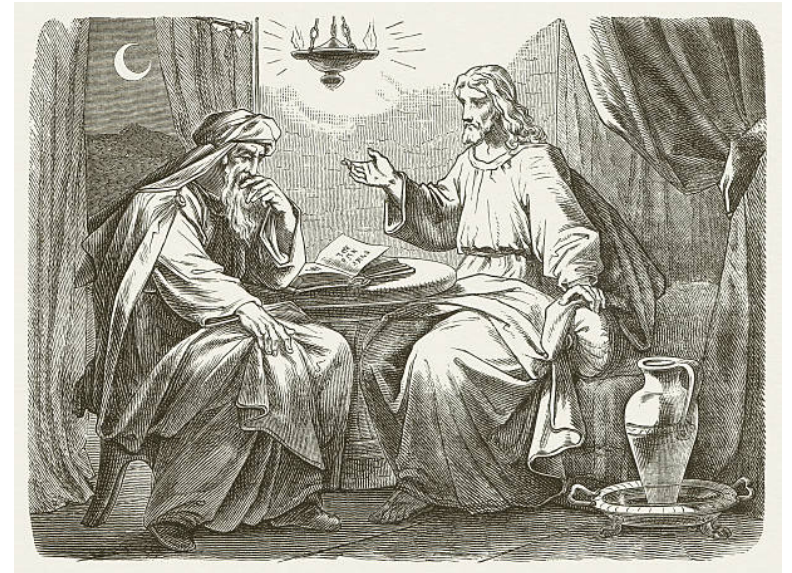
Figures in Neviim 2: 여호수아

느비임, 즉 선지서 또는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 서'입니다. 쥬네브 성경과 취리히 성경은 이 책을 모세 5경의 완성으로 보고 6경설을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톨릭 성서는 가나안을 땅의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서가 생명과 역사의 기초인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비길 데 없는 작품이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 합니다. 6경설을 부인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은 후 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 했다고 합니다. 신 34.8. 그들이 애곡을 그친 때는 그 다음 달, 즉 아빍 월 7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아빍 월 1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 1.11. 그렇다면 닷새 후 즉, 아빍 월 15일은 41주년 유월절이 되겠네요. 여호수아는 애곡 후 정탐꾼 둘을 여리고로 보냈고, 이들은 라합을 만난 후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수 3.22.

정탐꾼 둘이 여리고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싯딤을 떠나 요단으로 갔습니다. 수 3.1. 이들은 요단에서 3일 동안 유숙했고, 여리고로 갔던 정탐꾼 둘이 돌아온 직후에 바로 요단을 건너 길갈에 당도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출애굽 41년 1월 10일이었던 것입니다. 수 4.19.

모세가 올랐던 느보 산 일대를 가리켜 신명기는 '모압평지'라고 합니다. 모세의 시신은 바알브을 맞은 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도 하지요. 여호수아 서는 모압 평지를 가리켜 '싯딤'이라 합니다. 여호수아 서의 싯딤(סִטְדִּים)은 그 발음이 '숯팀'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고 우리 말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은 불쏘시개나 할 수 있는 나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것으로 성막에서 사용하는 각종 성물들의 내부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씌우라 하셨지요. 그런데 창 14.3 이하에 따르면 고대 중동전쟁이 벌어진 곳도 싯딤이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쓴 싯딤은 쉬뎀(שִׁטְמִים)으로 발음 합니다. 평지, 골짜기란 뜻입니다. 조각목의 숯팀과 평지의 쉬뎀은 비슷한긴 하지만 다르지요. 숯팀은 테드를 쓰고 쉬뎀은 그 자리에 달렘을 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서 기자는 원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평지를 아카시아로 오기한 듯... 이렇게 해석하면 싯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쓴 것이니 틀릴 수 있는 거고 또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놔두었지요.



Weekly Modenee

No. 33, August 14, 2022

알려드립니다

- 1) 지난 목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일몰까지 '투 브 아브'로 아브 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날부터 욕 키푸르, 즉 속죄일인 티슈리 월 10일까지 55일 동안 유대인들은 포도 수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복귀해 열심히 살라는 의미입니다. '티샤브 아브' 즉 아브 월 9일에 성전이 불에 탔지만 하나님께서 5일 후부터 일상생활을 하신 겁니다. 삶은 징벌보다 강하지요.
- 2) 금년 속죄일은 10월 4일 일몰부터 익일 일몰까지입니다.
- 3) 내일은 77회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 4) 중부 지방에는 물 난리, 남부 지방에는 가뭄과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5) 이택호 군이 9월 3일에 귀국하여 9월 17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전히 독일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복 주시도록 기도합니다.